



22130117



KOREAN A: LITERATURE – HIGHER LEVEL – PAPER 1
CORÉEN A : LITTÉRATURE – NIVEAU SUPÉRIEUR – ÉPREUVE 1
COREANO A: LITERATURA – NIVEL SUPERIOR – PRUEBA 1

Wednesday 8 May 2013 (morning)
Mercredi 8 mai 2013 (matin)
Miércoles 8 de mayo de 2013 (mañana)

2 hours / 2 heures / 2 horas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
- Write a literary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
-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20 marks]*.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y être autorisé(e).
- Rédigez un commentaire littéraire sur un seul des passages.
-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examen est *[20 points]*.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criba un comentario literario sobre un solo pasaje.
-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20 puntos]*.

다음 중 하나를 골라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

1.

은어낚시통신

“빌리 홀리데이¹를 듣고 계시는군요.”

“! ...”

“심야전화라서 놀라신 모양이네요. 용건을 말씀드리자면 ...”

정말 건조한 목소리였다.

5 “저희 은어낚시모임에서 보내드린 우편물을 받아보셨는지요?”

“은어낚시모임요?”

나는 아까 깜빡 잊고 뜯어보지 못한 하늘색 봉투를 집어들며 그녀에게 물었다.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뜯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죠?”

10 “저희 은어낚시모임에서 선생님께 보내는 초대장입니다.”

나는 벽시계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밤 열한시가 다 된 시간에 낚시회에서 전화를 걸어오다니. 또 지금은 은어 낚시철이 지나지 않았는가. 게다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낚시회 따위하고는 아무런 연고가 없을 뿐더러 낚시를 그만둔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된 것이다.(중략)

15 아무튼 나는 문제의 그 봉투를 뜯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책상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들고 나는 침착하게 봉투의 가장자리를 오려 내고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을 꺼내보았다.

그것은 사진을 복제 인쇄해서 만든 한 장의 엽서였다. 옆면의 사진을 자세히 보니 뜻밖에도 그것은 커티스의 “호피인디언”²이란 작품이었다. 어디서 이런 사진이 인쇄된 엽서를 구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반갑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다. 오래전에 <북아메리카 인디언>이란 그의 사진집 중 한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다시는 볼 수 없으리라 생각한 사진이었던 것이다. 나는 휘적휘적 소파로 돌아가 앉으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군 ... 그래, 이건 단순한 우편물이 아니란 말이지.”

아니나 다를까. 엽서 뒷면에 촘촘히 박혀 있는 글자들을 읽어가는 도중에 나는 서서히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지명수배라도 당한 듯한 꺼림칙한 기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25 말하자면, 지난여름 귀하께서 신문에 게재하신 은어 낚시 기사가 우리들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귀하를 우리 모임에 참석시키자는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귀하께서는 수년 전 한 여자와 만나고 또 헤어진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누구라는 것은 이 엽서를 보신 후 당사자인 귀하께서 짐작하실 일이고 또 지금 저희들로선 밝힐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을 기억하시게 되고 더불어 만나고 싶으시다면 아래 적힌 날짜와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30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암호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만나고 있는 익명의 지하 집단입니다. 은어(銀魚)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문장(紋章)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쓴 훌륭한 낚시 기사를 읽지 않았더라면 지난여름 우리는 은어 낚시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 매년 여름 우리는 은어 낚시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계획에 귀하가 동참해 주시면 더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

35 아시게 되겠지만 귀하와 우리는 진작부터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관계라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9월 셋째 주 토요일(18일) 18:00, 광화문 카페 “텔레폰”

추신: 이것은 비밀 통신문이므로 소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녕 <문학동네> (2010)

¹ 빌리 홀리데이: 1930~1950년대 미국의 재즈 싱어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² 호피인디언: 미국 남서부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으로, 자신의 역사를 빼앗기는 호피 인디언들의 모습 속에서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2.

맨발

어물전 개조개 한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튼 맨발

5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궁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궁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10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튼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15 가난의 냄새가 별별별별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문태준 <창비> (2004)

* 탁발: 승려가 경문을 외면서 집집이 다니며 동냥하는 일
